

# 자원에 두 번째 삶 선사 순환자원 인정제도

기고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우리는 오랫동안 '사용 후 폐기'라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편리함의 대가는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지고 있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가 사용하는 천연자원의 총량은 지난 50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1970년대 300억톤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920억톤에 달했고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1900억톤으로 종전보다 두 배 이상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문제는 지구가 그만큼의 자원을 영원히 제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의 기술적 한계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과도 직면하고 있다.

지구의 자원이 유한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자원을 '다시 쓰는' 문화, '버려지는 것이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다.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되는 순환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폐기물을 더 이상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폐기물 중에서도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폐기물에 '두 번째 생명'을 불어넣는 정책인 것.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커피찌꺼기(커피피박)이다. 한때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되던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후, 가축의 안락한 바닥재로 사용되거나 화장품 원료 등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이렇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재활용 및 유상거래가 가능해져 기업과 사회가 함께 경제적·환경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왕겨·쌀겨, 폐지, 폐유리, 고철 등의 폐자원에 대해 현재까지 총 84건의 순환자원을 인정해 영농조합법인이나 기업체 등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월 시행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우리 사회 저변에

자원의 순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폐지, 고철, 폐금속캔, 전기차 폐배터리 등 7종의 품목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한 후 순환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산업계에서는 처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자원 수요자들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

순환경제의 확산은 자원의 단조로운 재활용 수준을 뛰어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최신 동향과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버리는 사회'에 머물 수 없다. 자원의 시작과 끝을 잇는 선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며 순환이 일상이 되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다.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 이러한 지향점은 제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과 국민의 관심, 실천, 그리고 함께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

자원에 두 번째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곧 지구에 미래를 선물하는 것과 같다. 영겁의 세월이 지나도 이 지구가 푸르름을 간직할 수 있기를 진정 바란다면 우리 모두의 선택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

社說

## 지하수 발암물질 알고도 방치한 광산구

### 확산·재발방지 등 대책 내놔야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하남산단 일대 지하수 오염 사실을 알고도 2년 넘게 방치해 왔다고 한다. 오랜 기간 축적된 오염도 문제지만 정작 담당 기관은 '음용수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지하수 오염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

15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171개 지점 지하수 시료 657개 중 184개 시료에서 발암물질인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기준치의 466배가 넘는 TCE와 284배 넘는 PCE가 각각 검출됐고 있다. 금속세정제와 접착제 첨가제, 페인트 제거제, 농약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TCE와 드라이클리닝이나 금속부품 세정제 등에 이용되는 PCE는 유독성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

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하수는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물로 일상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된다. 특히 보고서는 오염된 지하수가 주거 지역을 거쳐 풍영정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시했다고 한다. 산업단지의 오염이 주민들의 생활 터전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다. 하지만 광산구는 2023년 7월 보고서를 받고서도 현재까지 2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즉시 조치해야 하고 정화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오염 확산 방지대책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수질 정화를 위한 대책도 전무했다.

광산구와 광주시, 환경당국은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거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발암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더욱 철저해야 한다. 어떤 물질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사용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업체들의 각성도 필요하다. 한번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100배, 1000배 이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 농기계 참사 반복, 더이상 방치 안 된다

### 고령층 안전관리 대전환 필요

전남 지역 농촌에서 고령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운기, 트랙터에 깔리거나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중한 생명이 계속 희생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전남에서만 농기계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사례가 1392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21명이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이송 후 사망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여수 화양면에서 7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앞서 완도와 보성에서도 유사한 사고로 고령 농업인들이 사망했다. 공통점은 대부분 고령자들이 단독으로 농작업 중 사고를 당했고, 병원과 떨어진 외딴 지역에서 발생해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실제로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사례가 전남에서는 무려 43%에 이른다. 농기계 사고의 90% 이상이 51세 이상에서 발생할 만큼,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은 심각한

다.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고려하면 예견된 재난이 아닐 수 없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제도와 교육은 여전히 부실하다. 이제는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단순한 주의 당부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고령자 대상의 농기계 운전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료자에게만 임대 및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병원과 먼 지역에는 ICT 기반의 응급대응 체계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농기계 종합보험 확대,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작업 중 사고를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보급 등도 병행돼야 한다. 일손 부족과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농기계 사용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문제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혼자 일하던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전남도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도 농촌 고령자 안전 정책을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고령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4일 밤(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일대에 쏟아진 갑작스러운 폭우로 지하철역 여러 곳이 침수되는 등 불편이 잇따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한 남성이 지하철역이 침수된 모습을 지하철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

Juan Luis Landaeta 소셜미디어 영상 캡처·연합뉴스

### 서석대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다 보면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띈다. 마중물은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먼저 보는 소량의 물이다. 깊은 땅속의 물줄기를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이 작고 소중한 물이 꼭 필요하다. 펌프질만으론 안 되고, 반드시 마중물이 있어야 한다.

손펌프를 쓰던 시절, 마중물은 물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준비였다. 이제는 비유의 영역으로 확장돼, 어떤 일의 시작을 촉진하고 성과를 끌어내는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정책이든 경제든, 세상의 흐름은 언제나 이렇게 작지만 결정적인 '첫 물'에서 출발한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차로는 전 국민에게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원이 돌아간다. 비수도권 주민에게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2차는 9월로, 소득 하위 90%에게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보조율도 90%까지 끌어올렸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소비 촉진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불균형 해소,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공동체 재건까지 고려한 '종합 민생 처방'이다. 기초생활을 겨우 이어가는 이들



에겐 생계의 디딤돌이 되고, 조금 숨통이 트인 사람들에게겐 소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소비는 심리에서 시작되고, 경제는 순환으로 회복된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급' 그 자체가 아니라 '지속'이다. 돈은 나갔지만 효과는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책은 빈 그릇에 물 붓기가 되고 만다. 그래서 마중물은 곧 책임이고, 성과를 만들기 위한 사전 투자다.

이 물이 흐르기 위해선 '정책 이후'가 더 중요하다. 행정은 돈을 집행하지만, 효과는 국민이 체감한다. 정책의 성패는 숫자가 아니라 얼굴과 표정에서 드러난다. 지원을 체감하지 못한 국민에게 그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펌프질은 시작됐다. 그러나 단 한 바가지로는 안 된다. 마중물은 작지만, 그것이 이어져야 진짜 물줄기가 솟는다. 한 번의 정책이 아니라, 신뢰의 연쇄가 이어져야 한다. 국민은 결과로 반응하고, 정치도 결과로 말한다.

행정은 뿌리고, 평가는 시민이 한다. 진짜 마중물은 다음 물줄기를 부른다. 변화는 예산이 아닌 신뢰에서 시작된다. 그 신뢰를 키우는 일이야말로, 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최동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